

자료 안내

1. 본 자료는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2018년)' 구매자들을 위해 제작된 무료 학습 자료입니다.

The screenshot shows a product page for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2018년)'. The book cover is red with white text. The price is listed as 11,700 won (10% discount from 13,000 won). The page includes a '구매하기' (Buy) button and a '바로구매' (Buy Now) button. There are also buttons for '장바구니 담기' (Add to Cart) and '선택하기' (Select). The page also features a '사라진 소망차' (Lost Wish) section with a 10.0 rating and a '공유' (Share) button.

(2018.10.14.자 알라딘 고등참고서 주간 4위, 60명의 최대 검토진이 참여한 고퀄리티 모의고사, 6회분 11700원 초저가 판매中)

2. 본 자료는 '수능&평가원 기출 中 시민 불복종 문항' 모음 자료입니다.

3. 학습법:

- ① 해당 단원이 부족한 학생은 여러 번 반복 출력해서 푸세요.
- ② 모르겠는 문항은 전개년 연도별 해설(EBS)에서 학년도를 검색하여 해설을 참고하세요.

4. 본 자료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자, '교육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5. 본 자료는 비 상업적 목적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친구분들과 file을 공유하거나,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6. 본 자료에 수록된 문항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편집 및 수정된 선지, 새로 작성된 해설에 대한 2차 저작권은 현자의 돌에게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복제를 금합니다.

7. 자료 정오표: cucuzz.com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17.6.16.)

갑: 법이나 정책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은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제2 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을: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하라.

- ① 갑은 불복종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 ③ 을은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공동체의 정의감을 불복종 정당화의 최종 근거로 본다.
- ⑤ 갑, 을은 불복종을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행위로 본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7.11.8)

갑: 시민은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을: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보기>

- ㄱ. 갑: 개인은 법에 우선하여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ㄴ.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이다.
- ㄷ. 을: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 ㄹ. 갑, 을: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8.6.12)

갑: 다수에게 순응하기보다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 맞설 때 소수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양심이 아니라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는 정의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현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불복종의 의도를 보여 준다.

ㄱ. 갑: 정의로운 정부에서는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시민을 지배한다.

ㄴ. 을: 시민 불복종은 국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법행위이다.

ㄷ. 을: 모든 시민은 언제나 다수가 결정한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8.9.8)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고 있는 정의감을 드러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①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폭력 행위인가?

②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위법 행위인가?

③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④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행위인가?

⑤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인가?

5.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11.3)

거의 정의롭지만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는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므로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닌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책임은 불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 ①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인가?
- ② 시민 불복종의 의도는 동료 시민들에게 공표되어야 하는가?
- ③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 행위인가?
- ④ 시민 불복종의 목적에서 정부 정책의 개혁은 제외되어야 하는가?
- ⑤ 시민 불복종은 어떠한 합법적 방법도 효과가 없을 때 행해져야 하는가?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6.16)

갑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을 :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 ① 갑 : 시민 불복종은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
- ② 갑 : 법률과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아야 한다.
- ③ 을 :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
- ④ 을 :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폭력적·공개적 저항이다.
- ⑤ 갑, 을 : 시민 불복종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거부하는 수단이다.

7.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9.9.19.)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게 된다.

<보기>

- ㄱ.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 항거하는 것이다.
 - ㄹ.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③①③②④

③①